"은퇴요? 후련해요…선수 아닌 삶도 자신 있죠"

은퇴 선언한 여수 출신 '아시아 인어' 정다래

구봉초 입학하며 수영 시작…훈련 힘들어 잠시 포기도
언니가 준 핫도그에 다시 운동…2010 亞게임 평영 金
오래된 부상이 '발목'…수영 교실 열고 지도자 새출발

여수 구봉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수영을 시작한 그녀는 아름다운 발레동작에 반해 한때 발레리나를 꿈꿨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견뎌야 할 훈련이 힘들어 잠시 선수를 포기하기도 했다. 그녀가 다시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언니가 손에 쥐어 준 '핫도그'다. 함께 수영을 배우던 언니는 훈련이 싫어 운동을 그만둔 동생에게 맛있는 핫도그를 건넸다. 언니가 건넨 따뜻한 응원과 핫도그에 이끌려 다시 운동을 시작한 그녀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인어공주' '4차원 소녀'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정다래(여·24) 선수가 최근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 수영 간판 스타였던 정 선수가 전한 소식에 팬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가족과 코치진과 오랫동안 고민한 결정이었다며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기대가 더 크다고 말했다.

"먼저 많은 분이 제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언론을 통해 은퇴소식이 전해지자 놀라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저는 담담하고 후련해요. 오히려 감기가 심해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스물넷. 금메달 리스트로 한창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은퇴를 결심한 이유는 부상 때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 선수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찾아온 오른쪽 무릎 연골 부상과 허리 디스크, 수영선수로 치명적인 왼쪽 어깨 근육 통증까지 고질적인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선수로서 필요한 체력을 갖추려 견뎌냈던 트레이닝이 오히려 독이 됐다.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화려한 모습은 한 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눈물이 더 많았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침대 위에서는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주위의 커다란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훈련을 계속했다. 주사를 맞고 병원치료를 받아가며 과거 기량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쳤지만 몸이 뒷받침되지 않아 결국 은퇴를 결심했다.

"금메달을 목에 걸 때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한 번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주위에서 또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서 저도 모르게 부담이 생겨요. 이걸 잘 극복해야 하는데 '금메달리스트'라는 부담이 컸어요."

금메달리스트 부담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건넨 대답은 단순했다. "걱정한다고 부상이 낫는 것도 아니고 부담을 느낀다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상은 시간이 가야 낫는 것인데 마음 편히 먹고 훈련하며 기량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게 제일인 거 같아요."

그녀가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에서 2분 25초 02라는 결과를 확인한 직후 눈물을 펑펑 흘리던 모습은 금메달만큼이나 팬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온 국민이 눈시울을 붉힐 만큼 서럽게 울었던 '인어공주'는 은퇴소식을 전할 때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자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정다래 수영교실'이란 이름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선수촌 안에서 생활은 비슷해요. 힘들었지만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게 정말 많아요. 여러 차례 해외에 나갔지만 오직 훈련을 위해서 갔어요. 이젠 가족과 친구와 평범한 여행도 떠날 생각이에요.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밤새도록 마음 편히 수다도 떨고 싶어요. 은퇴 후 선수가 아닌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효성 신입사원·임원진 사랑의 연탄 배달

효성에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200여명과 경인지역 임원진 20명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효성의 신입사원들 및 임원진은 서울 상계동의 저소득 가정 중 연탄을 사용하는 25가구에 연탄 1만장을 직접 배달했다. 임원진과 신입사원들은 나란히 서서 손에 손으로 함께 연탄을 나르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효성의 신입사원 입문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장형옥 효성나눔봉사단장(부사장)은 "추운 겨울을 힘들게 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도우면서 효성인의 필요 덕목인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내방

▲진종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박우배 〃 홍보담당관 ▲황윤선 〃 홍보과장 ▲강남경 농협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조성광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이병렬 광주시 남구 부구청장

지난해 광주 남구청에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고 있는 덕원복지재단 박용윤(오른쪽 두번째) 이사장.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기부는 당연"

덕원복지재단, 경로당 등에 10년째 온정

사단법인 덕원복지재단이 10년 동안 주변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공원의 노인은 물론 장애인시설, 경로당, 국군장병 등이 덕원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6일 덕원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동구지역 경로당, 전남 무안지역 경로당에 음식과 생활용품 기증을 시작한 이후 매년 중증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경로당 등에 1000여만원 상당의 밑반찬을 기부했고, 광주시 북구청과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를 통해 김장김치 550kg를 장애인보호시설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희망의집 외 9개소에 40kg씩 400kg,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20곳에 800kg을 전달하는 등 모두 870여 만원 상당의 김치 1750kg(870여만원)를 건넸다.

재단이사장이자 농업회사법인(주) G.food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용윤씨는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은 만큼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희균 전남대치과병원 교수 장관상 수상

전남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 외과 오희균 교수가 광주·전남지역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오희균 교수는 전남대치과병원에 재임하는 동안 소외된 지역계층 구강 질환 치료 및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

내일 광주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박영희〈사진〉 (사)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광주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지역 주요 기관장들과 여성지도자 대표들의 신년인사에 이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보람기자 boram@

한전-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약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신사업처'(처장 황우현)가 7일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나주지역 한 부모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는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그리드&신사업처는 이날 후원 협약식에서 후원 가족을 위해 준비한 생필품과 선물꾸러미를 전달한 뒤 앞으로 후원 자녀와 정기적으로 영화관람 및 스포츠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스테이션과 자동차 충전소 등 전국 각지의 사업현장에 후원 자녀를 초청, 미래 전력산업의 선진기술을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우현 한전 SG&신사업처장은 "본사 이전으로 직원들이 나주의 한 구성원이 됐는데, 나주 다문화가족들을 처음 만나 서로 의지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한다"며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후원 자녀들과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류충성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장 취임

류충성(문성중 교장)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11대 회장이 지난 6일 광주시 서구 알펜시아웨딩컨벤션에서 취임식을 했다. 부회장단은 수석부회장에 김기숙(53) 대성여중 교감, 부회장에 황창녕(56) 장산초 교장·고진석(57) 조선대 교수다.

류 회장은 "교육현장이 더는 특정이념에 근거한 정책 실험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본질 회복의 하나로 학교·가정·사회를 연계한 인성교육 범시민실천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무안 출생으로 조대부고·조선대·조선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주시 국·공·사립중 교감단협의회 회장, 광주교총 교육정책위 교섭위원·이사·중등교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윤종용(SK이노베이션)·권영순씨 장남 윤영호(GS)군 김봉수(애드하임 회장)씨 막내 서현양=10일(토)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 라온컨벤션 2층 아라홀.

▲정태일·천순열씨 장남 대운군 형시영(광주 광산경찰서)·하영남씨 막내 진선양=17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강남 더청담웨딩홀 2층 노블레스홀 당일 오전 6시 염주종합체육관 정문 앞 전세버스 출발, 광주 피로연 10일(토) 낮 12시 라마라플라자 광주호텔 5층 연회장.

알림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종친회

▲광산 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정기총회=8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 금남로 대명가든 062-525-2728.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이화회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13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모집

▲2015 시민·학생 외국어 무료강좌 수강생=아랍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수업기간 1월 12일(월)~23일(금) 오전 10시~11시 50분. 수강생 모집은 9일까지 언어별 선착순 15명. 교재 무료제공 062-230-6903.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信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信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합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광주시 북구 밤실피닉스 축구클럽 동호회원=30세이상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력 환영 010-2684-4490.

부음

▲조영님씨 별세 박원균·창균·용균·정균·경숙·미숙·희숙씨 모친상=발인 8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최정임씨 별세 윤영선·배현·환석·승석·이순씨 모친상=발인 8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김철상씨 별세 경훈(롯데물류)·경석(광남일보)·경희씨 부친상=발인 9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나공숙 님(여/67세)	102호 故최종연 님(남/81세)
子/子婦 : 조형남/유지현, 조형기/박금숙 女/壻 : 조미영/정현수 • 발 인 : 1월 9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子/子婦 : 최민호/강영미, 최민종 女/壻 : 최용미/조석순 • 발 인 : 1월 8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201호 故이채래 님(여/101세)	**301호 故강순길 님(남/87세)**
子/子婦 : 한동희/박정희, 한남희/이정순, 한천섭/이미숙 女 : 한동엽, 한동심 • 발 인 : 1월 8일 • 장 지 : 고흥 풍양 선영 • 연락처 : 227-4381	子/子婦 : 강경원, 강경석/이기숙, 강경호 女/壻 : 강호정/차주엽 未亡人 : 최정심 • 발 인 : 1월 8일 • 장 지 : 영광법성 선영 •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오야임 님(여/76세)	**402호 故윤지숙 님(여/72세)**
子/子婦 : 홍선택/이요연 女/壻 : 홍선화/김만철, 홍선영/조호경, 홍선금/김경욱, 홍선진/윤형천 • 발 인 : 1월 9일 • 장 지 : 망월묘역 • 연락처 : 227-4383	子/子婦 : 임동수/최미숙, 임동현/양미라, 임동민/엄성미 女/壻 : 임수미/최용수 • 발 인 : 1월 9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